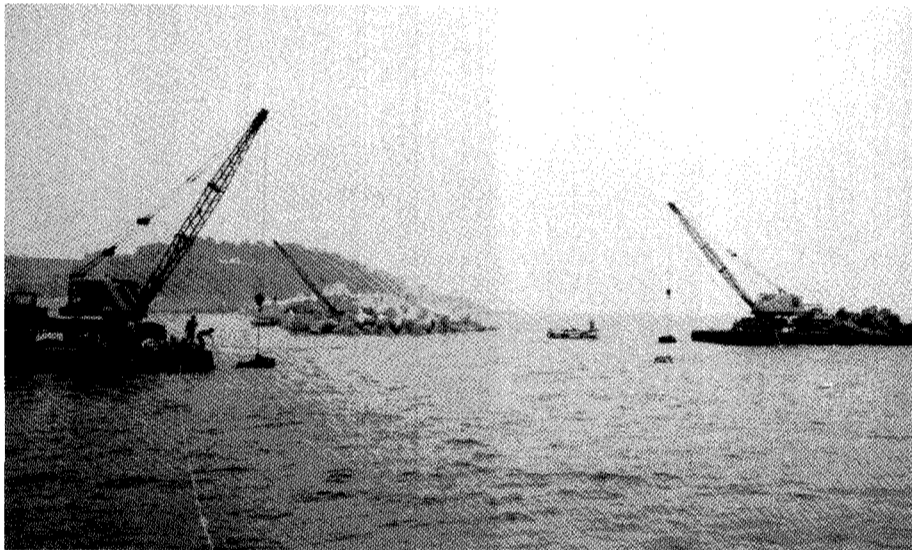


올해 어항 시설공사 착공 앞 당겨 4.20 현재 - 59건 중 37건 착공, 태풍기 위해 줄어들 듯



올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어항시설 공사가 예년에 비해 착공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청에 의하면 어항시설공사는 올해 총 56개항 59건, 1천5백59억 4천4백만원의 발주 계획 중에서 4월 20일 현재 37건(62%), 1천1백4억7천7백만원(70%)이 발주,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높은 착공률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항 시설공사 발주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는 계획아래 1월부터 발주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써 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등 절대소요 공사기간의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방청별 집계한 어항 시설 사업 착공 현황을 살펴보면 1월 26일 전남 연도항의 착공에 이어 울도, 선진포, 내밭, 여호, 시산, 낭도, 초도, 지세포, 원전, 매물도, 정자, 안목, 공현진, 어청도, 구시포, 소흑산도, 마량, 득암, 도장, 청산도, 보옥, 오산, 구산, 축산, 대보, 양포, 감포, 하효, 모슬포, 모항, 남당, 삼길포, 안흥구항, 오천, 외연도, 흥원 등 36개항 37건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내로 나머지 공사 모두를 발주하기로 하고 태풍 진로권 어항과 상반기 주요공정의 마무리가 필요한 외곽시설 추진 사업 대상항 등 규모가 큰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해외어항조사단 파견에 높은 관심

외선진국의 어촌어항에 대한 시책과 정비 및 환경실태를 살피고자 한국어항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16차 해외어촌어항 조사단에 참가할 지원자를 지난 15일 까지 모집한 결과, 어촌·어항관계자 35명이 참가신청을 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조사단은 6월 3일부터 12일(10일간) 까지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어항들을 시찰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는 해외어촌어항 조사단 파견에 어촌어항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년 2회로 확대해 올 가을에 17차 해외어촌어항 조사단을 구성, 파견할 예정이다.

공 지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한국어항협회는 일반국민들의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및 바다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출품 규격은 8"×10" 칼라사진, 출품기간은 오는 10월 1일~10월 5일이다. 주제는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 어촌·어항·어장 전경, 해양문화, 어촌 관광 등과 관련되는 미발표작품에 한한다.

문의 : 한국어항협회 기술홍보실 송영택 (02)3673-2854, syt@fipa.or.kr